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바치는 기도

예수님, 당신은 숨을 거두셨으나
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은
세차게 흘러나왔으며
자비의 대해는
온 세상을 위해 열렸습니다.
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심이신
오, 생명의 샘이시여,
온 세상을 감싸시면서
저희에게 당신 자신을 비우셨나이다.
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
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 나온
오 피와 물이여,
저는 당신께 의탁 합니다.